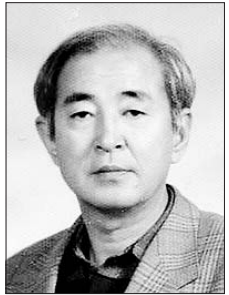


오륙도 칼럼



이 상 호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확신이나 신념 없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믿음에 없거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겸손 하면서도 확고한 자신감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성공은 물론, 행복해 질 수도 없다. 자기자신의 내부에 할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

감과 능력이 심어져 있지 않는데 성공과 행복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된다. 성공도 자기자신이 만들어 내는 것이고, 실패도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겸손한 자신감 '백전백승'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확고하면 서도 겸손한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과 자신감 없이 일을 하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엄청난 차이를 불러 온다고 할 수 있다.

운동경기에 임하는 코치나 선수들이 하나같이 경기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면 그 경기에 상승효과를 일으켜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까 하는 의심과 자신감 없이 경기

긍정의 힘 키우자

를 할 경우 백전백패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누구나 자기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견직한 자신감을 갖고, 일을 착수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실패하지 않을 까 하는 의심의 잠재의식을 마음속에 깔아놓고 일을 시작한다면 아주 쉬운 일이라도 실패로 끝나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고, 뛰어난 조직의 지도자가 조직원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부모들과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나 조직원들에게 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자신감과 능력 그리고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지장 밑에서 지질이, 용장

밑에서 용병이 양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실력은 백지 한 장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 차이는 마음속에 확실한 자신감과 능력의 잠재의식을 심어두고 생활해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부모가 긍정적이거나 낙천적이고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고 살아간다면 자식들도 이러한 부모들의 의식과 생활습관을 닮아가게 된다.

부모가 일년 내내 신문이나 잡지 한 권도 보지 않고 오직 놀이문화에 치중한다면 그 자녀들이 배운 것은 부모들의 놀이문화 밖에 없는데 다른 무엇을 하겠는가 말이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모방을 먹고 자랄 정도로 극히 모방적이다. 특히 아이들은 어

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된다.

부정적 사고 전염 피하자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은 이러한 논리에 100% 동의하리라 본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다. 독실한 가톨릭집안에 신부, 수녀가 나오는 법이다. 왕대밭에 왕대가 나오는 것이다. 부모가 열등의식을 갖고 있거나 자신감 없이 생활해 간다면 그 자식들도 그러한 잘못된 의식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모릅지기 마음가짐과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 누구나 마음속에 긍정적인 자신감, 확신, 겸손, 믿음을 심어 그러한 열매가 맺어질 때 까지 부단하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구절을 아집자책 할 것 없이 틈나는 대로 암기연습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성서에 나오는 진리의 한 구절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을 부여해주고 있다.

성서에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분을 통하여 나는 무슨 일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불신이나 패배감이라는 부정적인 사고나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은 성공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러한 잘못된 의식을 전염시키는 게 된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우리 스스로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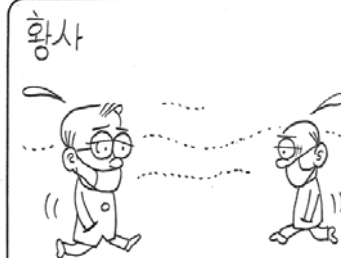
열등의식도, 부정적인 잘못된 의식도 병을 유발시키는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현대의 정신질환이나 다름이 없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러한 비뚤어진 의식이나 사고를 치유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절대자의 권능과 지혜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서 우리마음 속에 신앙의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기도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겨자씨 만큼의 작은 신앙이라도 있다면 그 신앙의 힘으로 우리들은 변화될 수 있다.

언론인·대연3동

신선대

<158>

채 규 중



선용의
1000자 지혜 59

가 짜

우리를 주위에는 소위 <재벌>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이면서 아닌 체 하거나 아니면서 인 체 하고, 없으면서 있는 체, 있으면서 없는 체 하는 <가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참된 재주나 학문이 없을수록 밖으로 더 꾸미려 한다는 것이다. '빈 강릉이 소리'가 더 많이 난다'는 말도 있지만 자신의 모자람을 속이고 허장성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웃지 못 할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한번은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장자(莊子)에게 말했다.

"노나라에는 유사(儒士)는 많지만 선생의 도술을 배우는 사람은 적은 것 같소."

"노나라에는 참다운 선비가 적은가 봐요."

"노나라 사람이 거의 유사의 복장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선비가 없다고 하시요?"

"제가 듣기로 유사 중에는 둥근 것을 쓴 이는 천시(天時)를 알고, 삼으로 네모난 신을 만들어 신은 이는 지형(地形)을 알고, 옥결의 패물을 찬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면 과단성 있게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사람이 그 도를 익혔다고 하여 반

드시 그런 복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복장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도를 아는 것도 아니랍니다. 애공께서는 당연히 믿으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온 나라에 진정 도가 없으면서 거짓 복장을 한 이를 사형에 처한다고 영을 내려보십시오."

그래서 애공이 영을 내렸다. 그러자 닳새도 안 가 노나라에는 유사의 복장을 한 사람은 모두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어떤 장부 한 사람이 유사의 복장을 그대로 하고 있어 애공이 그를 불러 이것저것 다 물어본 뒤에 나라 일을 물었다.

그 대답이여 지혜가 풀이 없었다. 그것을 본 장자가 말하였다. "그래도 노나라에 진정한 유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군요."

진짜보다 가짜가 많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속이 짙 찬 사람이 많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 가벼우면 위로 뜨고, 속이 비면 소리가 난다는 진리를 누구나 한 번쯤 마음에 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번역문화가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황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자원봉사 적극 나설 때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만큼 아름다운 것은 흔치 않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부와 자원봉사문화가 많이 확산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

얼마 전에 회사 일로 미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고 들은 LA의 자원봉사 운영시스템은 참으로 부럽고 놀라웠다.

우리가 방문한 한곳은 자체부자유

자 휴식공간이었다. 여기에는 자체 부자유자 누구나 지낼 수 있고 시에서 모든 경비와 편의를 제공했다.

LA시는 여기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 정도이며 이들은 한달에 서너 번씩 정기적으로 조를 짜가지고 찾아와 같이 놀아주고 몸도 씻겨주고 같이 식사하며 이들의 손발이 돼준다고 한다. 이런 게 어 어떤 물질적인 봉사보다 몇 곱절 낫다는 것이다. 거기서 만난

한 60대 아주머니는 23년 동안 빼놓지 않고 꼬박 그 자체부자유자센터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다름데 살고 있는 자기의 아들딸도 그곳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있다고 설명해줬다.

LA라는 도시의 시민 모두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부러웠다. 우리 남구 구청과 구민들도 힘을 합하면 이 정도는 할 수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선강(문현3동)

시설물 파괴 단속을

감만2동 33-55번지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이다.

가게 근처 횡단보도 양옆에 횡단보도표시기 등이 두개 있는데 운전자들의 실수로 파손하는 경우가 많다. 유턴 미숙으로 들이박는 택시와 덩치가 큰 컨테이너 차량의 접촉 등

여 제거 또는 이식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부경대 측과의 협의 및 설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라사업단·김원>

어려운 이웃 지원에 최선을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서로 돕는 배려의 마음을 키우고 행정관청을 중심으로 이들을 돌봐줄 사회적 시스템을 가동하자고 건의하신 문현2동 이상배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위기가구민생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주민센터 사회담당자 및 사

회복지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는 동 사회담당자를 통해 문의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이은주>

소관부서에 건의

행정터널 근처 미진택시 앞에서 좌회전 신호시 이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어야 하는 차들이 신호도 없는 도시고속도로 방향으로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대연5동 이영임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2동 이상배씨의 의견에 답변드립니다.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위기가구민생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주민센터 사회담당자 및 사

<교통행정과·김덕진>

■ 나의 생각

재개발사업 문제점 보완을



이 덕 식

지난 1월에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을 계기로 서울 및 대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심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 있다.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나 조합원에 대한 보상은 실제 내집을 팔고 받은 보상비가 너무 적어 원주민의 재정착이나 세입자들의 실제 입주에는 터무니없는 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서울보다 재개발의 개발이익이 월등히 적어 보상비도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개발지역주민의 재정착률은 현저히 떨어진 다 하겠다.

또한 도시재개발사업은 아파트 위주의 건설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와는 달리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노인층을 떠나게 할 우려가 크다. 또한 재개발이 저소득층을 타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고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지를 형성하는 재개발방식이 현실적으로 서민들을 내쫓는 식의 '계축점소'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제2·제3의 용산사태가 우려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면 관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의 첫째로 재개발사업 방식에 공공성을 도입해야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주체가 대부분 민간사업자인점이 조합원이나 세

입자에게는 불리한 요소다. 조합의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시공을 맡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강제철거 등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어 마찰이 일어났다.

이에 행정기관은 인·허가과정이나 행정지도 등으로 사업방식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공공성을 부여하여 조합원이나 세입자들의 욕구를 해소해야 한다.

그 예로 현재 부산시에서는 시에 등록된 480여 곳의 재개발·보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올해 초부터 사업의 타당성여부 및 재심의

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중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50%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에서의 보상비문제와 주민의 욕구에 대비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기존도심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많은 관련 법제가 있으나 이는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기존 시가지 적응이나 역세권 고밀도개발지역 부적합 그리고 정비구역의 거대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재개발활성화와 고가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에만 연연하지 말고 순차적이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여 다시는 용산사태와 같은 아픔을 없애야 하겠다.

(재)한국 경제조사업연구원

도시계획 전문위원

■ 부산시립예술단 테마여행을 다녀와서

봄이 오는 길목으로의 여행

지난 13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과 함께 떠나는 테마여행을 다녀왔다. 41명의 정기회원들은 '고대문화를 꽃피운 역사의 고장 고령'으로 마음이 먼저 달렸다. 그림같은 창 밖 풍경은 아쉬움으로 남길게 2시간 빙길을 달리 대가야 박물관에 도착했다.

대가야의 건국 신화는 하늘신 이비가와 가야산신 정경모주 사이에서 태어난 두 형제 가운데 형은 대가야 시조인 '이진야시왕'이 되고, 동생은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이 되었다고 한다. 대가야의 복식, 청동기시대의 별자리, 고인돌무덤, 바위그림 등 선사유적을 둘러보았다.

여행자들이 가장 관심있게 관련한 곳은 왕릉전시관이었다. 2000년 9월 개관한 왕릉전시관은 국내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무덤이다. 무덤의 구조와 축조방식, 주인공과 순장자들의 매장 모습은 관람객에게 대가야인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이자 종합 전시관이었다.

주인공이 문헌 으뜸돌방과 그에 딸린 창고 성격의 깨문거러를 돌방 두 기를 중심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32기의 순장묘가 있는데 모두 40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묻혔다.

왕릉내부의 전열장 토기에는 생선뼈, 고동, 닭뼈, 민물고기 등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토기는 부드럽고 안정된 곡선미를, 장신구는 정밀한 세공기술로 화려함을, 튼튼하고 실용적인 갑옷과 투구는 무사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고령읍을 병풍처럼 감싸는 산 위에는 주산성이 있고 남쪽으로 뻗은 능선위에는 왕들의 무덤이 있었다. 신기한 왕릉을 먼 눈으로 감상하고 오전의 마지막 장소인 우륵박물관으로 향했다.

가실왕의 명을 받아 혼을 불러넣은 가야금의 재질은 오토나무요, 12줄은 명주실로 소리를 구성한다. 가야금의 둥근 위판은 하늘, 평평한 아래판은 땅, 그 속이 빈 것은 하늘과 땅의 공간 이란다. 우륵은 전체 185곡을 만들었는데 현재는 12곡의 제복만 남아 있다고

한다. 잃어버린 왕국의 역사를 둘러보고 나니 배꼽시계는 어김없이 제 시간을 알고고 맛있는 점心和 체합이 기다리는 개실마을로 향하였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골" 이란 지명을 가진 개실마을은 영남 사립학과의 중심인물인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350년간 살아온 집성촌이다. 정갈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점필재종택과 사랑채, 고방채, 점필재 선생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둘러보았다. 정겨운 돌담길따라 아름다운 전통 한옥을 가까이 하고 보니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와 있는 것 같았다.

옛을 만드는 체합은 독특했다. 빨간 엿을 두사람이 가루를 문허가며 하얗게 될 때까지 늘이고 또 늘이는 작업에 옛은 엉망이 되어도 신이났다. 자신들이 만든 엿을 입에 넣고 딸기밭으로 향하는 마음은 설레임 그 자체였다. 딸기밭 주인은 유기농으로 가꾼 딸기라서 그냥 먹어도 되니 맘껏 맛보고 가란다. 싱싱한 딸기를 먹는 순간 피로는 저만치 달아났다. 여행을 같이 즐겼던 이윤정(63세)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산만하지 않고 격조있는 여행을 도와준다. 테마여행자가 미리 홍보되니 그곳의 정보를 알 수 있고 다음 여행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최정순 기자